

“목포시정 총괄책임자로서 새로운 도약 이끌 것”

조석훈 제51대 목포부시장 취임

39년 행정 경험 ‘시장 권한대행’ 수행
“The Best Mokpo 기틀 다지는데 최선을”



조석훈
51대 목포부시장

목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인 가운데 조석훈 제51대 목포시 신임 부시장이 1일 취임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석훈 부시장은 전남도 평생교육원 사무처장, 해상풍력산업과장, 정책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장흥 부군수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과 전략적 통찰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목포시가 지난 1일 시청에서 조석훈 부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취임 축하 기념촬영을 했다. <목포시 제공>

특히 현안 대응과 조직 소통 능력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목포시 부시장 직무와 더불어 시장 권한대행 역할도 수행한다. 조 부시장은 “전통과 역사가 깊은 전남 제1의 도시 목포시의 가족이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 오

늘부터 목포는 제2의 고향”이라며 “앞으로 이 소중한 제2의 고향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목포시정의 총괄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지만, 시민과 직원들과 함

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목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식 경험과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The Best Mokpo (최고 목포)’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작은 일부터 직원들과 상의하고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모든 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사기진작’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직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헛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불협화음과 해묵은 관행을 개선해 일할 맛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신뢰받는 목포시 공무원’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조 부시장은 “목포가 전국 기초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도약하려면 스스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남도와 중앙부처가 주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목포시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며 “내년 민선9기 비전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자”고 제언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 공동 육아 나눔터 ‘가족센터’ 개관

커뮤니티·요리교실 등 맞춤형 공간 마련

가족 복지와 공동체 돌봄의 거점이 될 ‘완도군 가족센터’가 문을 열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센터 1층 다목적 소통 공간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댄스 공연과 해금 연주 등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이뤄졌으며, 센터가 지닌 복합적 기능과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가족 복지 공간으로 ▲1층에는 다목적 소통 공간, 커뮤니티실 ▲2층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실 및 한국어 교실 ▲3층에는 상담실, 사무실 ▲4층에는 교육실, 요리 교실, 동아리방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공간이 마련됐다.

앞으로 가족센터는 육아,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은 물론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



완도군이 최근 가족 복지 공간인 ‘완도군 가족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가족 복지’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가족센터가 가족애(愛)를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

다”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폭넓고 따뜻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을 위해 약 8천800만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교구재를 완도군에 후원하며 지역 공동체 강화에 힘을 보탤

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지역 상인들 “지역 상권 존폐 위기…아울렛 철수” 촉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정책 대응 시급

나주 지역 상인들이 매출 급감 등에 반발해 임시 아울렛 매장 철수를 촉구했다. <사진> 나주 상인들은 1일 나주시 중앙로 학다리 위(세왕아파트 입구)에서 ‘로지아울렛 철수를 위한 기자회견 및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나주금빛상점가상인회, 나주목사고을시장상인회, 나주시상가변영회, 빛가람동상가변영회, 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 나주시여성경제인연합회 등 지역 상인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박형석 나주금빛상점가상인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 질의응답,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 상인회 관계자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쫓는 유사 유통업체로 인해 정지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상인들이 존폐 위기에 몰려 있

다”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주=정준환 기자

영광군, 청년부군수와 청년공동체 사업 첫 발

청년 상담·그림 커뮤니티 등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영광군은 “최근 전남형 청년공동체 6개 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동체는 ▲그림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음악가 공연개최 ▲관광콘텐츠 청년 홍보창

구 운영 ▲청년상담 프로그램 운영 ▲반려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서 보조금 집행 교육과 함께 조아라 청년부군수의 공동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팀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체 간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의 첫 걸음을 축하한다”며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향공특화산업단지 분양 ‘본격화’

계약금 납부... MRO 행거 건설 착수

무안군은 “최근 무안향공특화산업단지 MR O 부지(망운면 피서리 1118번지/7만2천744.9㎡)의 분양 계약금이 납부돼 산업단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4월 ㈜무안에어로테크닉스와 무안향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업무협약(MOA)을 체결한 이후, 산업단지를 2024년 6월 준공했다.

이번 계약금 납부로 준공 1년여 만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서 무안군은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게 됐다.

㈜무안에어로테크닉스는 무안군과 MOA 체결 이후 항공정비(MRO)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올해 5월 입주 신청을 완료하고 MOA 예치금(10억원)을 포함해 11억9천745만원의 계약금을 납부 완료했다. 또한 투자금을 확보해 향후 중도금과 잔금도 납부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무안에어로테크닉스는 항공기 정비·점검을 위한 격납고(행거)를 자체 설계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과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하반기 MRO 행거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단지 내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산업시설 2필지를 지난해 12월 소유권 이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계약으로 인해 잔여 부지 분양에도 탄력이 붙어 무안군 항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에어로테크닉스와 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무안의 항공산업 발전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돼 가고 있다”며, “항공정비 기술이 무안에서 더욱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성호 기자

해남,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속도’

개별공급 방식비 30% 연료비 절감 효과

해남군은 1일 “고당, 고전, 고평, 고대마을 등 고현지구 150가구에 LPG 공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안정장치 등을 설치해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공급 가격을 인하하고,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사용 안전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된다. /해남=박필용 기자

문내면 고현지구는 2024년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남군은 고현지구에 이어 읍면 단위 사업으로 송지면 산정마을(45가구), 마을 단위 사업으로 북일면 신방마을(30가구) 등으로 LPG배관망 구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계획이다.

LPG 배관망 구축은 기존 LPG 용기 개별공급 방식 대비 약 3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해남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1004몰’ 4주년...최대 44% 할인 행사

구매왕·출석왕 등 4대 천왕 이벤트도

신안군은 1일 “군 대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에서 오픈 4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주년 기획전은 오는 13일까지 열리고, 최대 44-24%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고객별 최대 3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숫자 ‘4’를 테마로 한 ‘4대 천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 ‘구매왕’, 가장 많은 리뷰를 작성한 ‘리뷰왕’, 매일 4일 연속 출석 체크하는 ‘출석왕’, 지인을 초대한 ‘추천왕’ 등 4개 부문에서 선정된 고객에게는 최대 4만원의 적립금이 주어진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즉시 사용 가능한 4천원 적립금이 지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1004몰 4주년은 지역 주민, 소비자, 임업계가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신안 농수특산물의 온라인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